

**담당 : 홍보팀 김균섭 사원ㅣ E-mail : media@klpga.org**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3R 주요 선수 코멘트**

 **고지원, 배소현, 성유진**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
| 2 | 기 간 | 2025년 7월 31일(목) ~ 8월 3일(일) |
| 3 | 장 소 | 오로라 골프&리조트 [마운틴(OUT) / 레이크(IN)]  |
| 4 | 주 최 | 오로라월드(주)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6,509야드 |
| 8 | 참가인원 | 120명 |
| 9 | 주요출전선수 | 이예원, 고지우, 노승희, 김민선7, 김민주, 이가영, 박혜준, 박보겸, 유현조박지영, 한진선, 김시현, 송은아, 정지효, 박민지, 김소이, 성유진, 김수지김도희(A), 김지영2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2라운드] 11시 ~ 17시[3라운드] 10시 ~ 16시[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고지원, 3라운드 중간합계 15언더파 134타(66-69-66) \*단독 선두(경기종료 기준)**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10109>

**Q. 단독 선두에 올랐다. 경기 소감은?**

오늘은 샷보다는 퍼트가 잘 됐다. 특히, 어프로치가 좀 아쉬웠는데 그 정도 미스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이렇게 마음먹으니 스코어를 잘 줄일 수 있었다.

**Q. 체력적으로는 어떤가?**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히 힘들다. 포도당도 챙겨 먹고, 푹 쉬면서 내일도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겠다. 체력 분배에 신경쓰겠다.

**Q. 최근 일본 프로 테스트를 봤는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골프 선수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었고, 일본 JLPGA투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신청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다 도전해보고 싶다.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곳부터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일본을 먼저 선택했다.

**Q. 일본에서 어떤 점을 배웠나?**

짧고 좁은 코스 특성상 공략법을 새롭게 배웠다. 하이브리드로 끊어가며 플레이하는 방식이나 일본 선수들의 매너, 경기 운영 방식 등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됐다. 오늘 경기에 있어서도 그 경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Q. 내일 우승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잘 돼야겠지만, 특히 어프로치를 좀 더 보완할 것이다. 그래도 특별히 우승을 의식하지는 않고, 1라운드 때처럼 재미있고 즐겁게 플레이하겠다. 특히, 올해는 정규투어에 출전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출전한 대회에서 하고 싶은 샷을 마음껏 하자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싶다.

**Q. 올해 이미 드림투어와 정규투어 합쳐 20개 가까운 대회를 뛰었는데?**

그린 스피드가 달라 적응이 쉽지 않다. 초반부터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아침마다 일정한 루틴으로 연습하며 대처하고 있다. 현재로선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내년도 정규투어 복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인데,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나?**

마음이 확실히 편해졌다. 그 덕분에 정규투어에서도 더 편하게 스윙할 수 있다. 올해는 쫓기듯이 경기하지 말자는 목표로 시작했고, 1등이든 30등이든 같은 마음으로 플레이하자고 다짐했다. 그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Q. 첫날 1위를 하고 언니와 나눈 이야기가 있었나?**

“어떻게 그렇게 잘 치냐?”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오늘 숙소에 가서 나는 아직 챔피언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언니에게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 배소현, 3라운드 중간합계 14언더파 134타(71-66-65) \*공동 2위(경기종료 기준)**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8589>

**Q. 경기 소감은?**

무더운 날씨지만 어제도 6타 줄였고, 오늘은 더 좋은 스코어로 마무리해서 뜻깊은 하루였다.

**Q. 1라운드와 비교해 2, 3라운드에서 달라진 점은?**

디오픈을 다녀온 후 연습을 거의 일주일가량 못 했는데, 그래도 뜻깊은 여행이었다. 가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같이 갔던 프로님과 이야기하며 스윙을 보완하려고 했다. 1라운드까지는 어색했는데, 2라운드부터는 좀 더 과감하게 시도했고 그 점이 통했다. 교정했던 스윙과 퍼트 모두 익숙해지면서 자신감 있게 플레이했다.

**Q. 올 시즌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시즌 전반기에는 경기 흐름이 좋다가도 끊기는 부분이 있어 아쉬웠다. 그래도 컷 탈락 없이 중위권 이상에서 꾸준히 마무리했기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흐름이 안 좋더라도 잘 인내하며 견디자는 마음으로 버텼다.

**Q. 오늘 9번 홀에서 샷이글을 했는데?**

117야드 정도 남았고, 왼쪽에 좀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핀이었다. 페어웨이에서 48도웨지로 컨택만 잘해서 핀보다 약간 우측에 떨어트리려고 쳤다. 처음에는 공이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주변 갤러리 반응을 통해 이글인 것을 알았다.

**Q. 이글이 전체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줬다고 느꼈나?**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1미터도 안 되는 짧은 퍼트를 놓쳤던 장면에서 더 영향을 받았다. 셋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로크에 들어가면서 퍼트가 왼쪽으로 당겨졌다. 그 실수를 전화위복 삼아 남은 홀에서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Q. 경기 각오는?**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선두와 1타수 차이라서 더 적극적으로 우승 경쟁을 하고 싶다. 오랜만에 챔피언조에서 플레이하는데 기대된다.

**◈ 성유진, 3라운드 중간합계 14언더파 134타(70-68-64) \*공동 2위(경기종료 기준)**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8881>

**Q. 오늘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내며 공동 선두에 올랐다. 소감은?**

오늘 전체적인 샷 감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퍼트가 잘 떨어졌고 경기 흐름이 좋아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

**Q. 지난 이틀보다 오늘 더 많은 타수를 줄였는데?**

퍼트할 때 생각을 조금 바꿨다. 라이를 평소보다 덜 보고, 퍼트에 속도를 조금 더 줬다. 그리고 중위권에서는 더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플레이했는데, 오히려 부담감이 사라지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Q. 전반기가 곧 끝나는데,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90점을 주고 싶다. 우승이 없다는 점에서 100점은 아니지만, 지난해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나를 다독이고 싶은 마음에서 90점을 주고 싶다. 골프는 개인 종목이다 보니 채찍질도, 위로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난해 허리 부상이 있었는데, 지금 몸 상태는 어떤가?**

지금도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한다.

**Q.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어떤 점에 집중할 계획인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 오늘까지의 등수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내일 끝났을 때, 1등인 사람이 진짜 1등이라고 생각한다.

**Q. 각오는?**

챔피언조에서 경기하는데 다른 선수들 신경쓰지 않고 내 플레이에 집중해서 공격적으로 임하겠다.

**Q. 올 시즌 목표는?**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는 것이 1순위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스폰서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